

1985. 9. 20

— 第26回 全国民俗芸術競演大會 出演 —

瑞山 벗가릿대놀이

忠清南道

由 來

瑞山 벧가릿대놀이는 오랜 옛날부터 瑞山郡 仁首面 野堂里에 連綿히 傳承되어오는 民俗놀이이다.

이 놀이는 陰正月 열나흘날 부터 始作하여 2月 초하루에 끝이 나는 놀이로서, 農夫들이 農旗를 先頭로 대동삼에 가서 삼굿을 하고 집 마당에서는 地神밧기를 한 다음 모닥불을 피워 1年間의 厄運을 몰아내고 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農夫들은 대동삼뒀에 벧가릿대를 세우고 내땅을 뵈히기 위하여 마당 찻기놀이를 한다.

하늘에서 영등 할머니 (靈登神)가 내려 오신다는 陰 2月 초하룻날이 되면 벧가릿대 옆에 祭床을 차려 놓고 영등신에게 歲和年豐과 마을의 安寧을 祈願한다.

祭가 끝나면 住民 모두가 한데 어울려서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한가당 農事놀이를 하고 벧가릿대를 높이 든다.

農事철을 앞두고 펼쳐지는 村老들의 素朴한 祈願과 歌舞音曲으로 밤이 새도록 즐기는 이놀이를 通해서 當時의 時代相은 勿論, 마을의 安寧과 勤勉. 協同을 다짐하는 勸農思想을 엿볼 수 있다.

解 說

○ 入 場

벚 가릿대 農樂을 흥겹게 울리며 農旗. 祭官
祭物을 인 아부네, 섬을 진 農夫. 작도. 쟁기. 씨레를
진 사람. 住民順으로 덩실 덩실 춤을 추며 入場한다.

○ 地 神 밧기

陰 正月 열 나흔날 저녁 農夫들이 農旗를 先頭로
대동심을 들러싸고 상외의 先소리로

「 물 주시요! 물 주시요!
龍도님네 물 주시요!
뜯 어 라! 뜯 어 라!
물구멍만 뜯 어 라! 」

하면서 섬굿을 하고,

집마당으로 가서 地神을 鎮靜시켜 年中無事하기를
비는 地神 밧기를 한 다음, 마을 곳곳에서는 모닥불을
피워 1年間의 厄運을 몰아내며 동네 아이들은 연을

놓인다.

○ 벧 가릿대 세우기

마을 주민들은 草家 집과 대동샘 옆에서 동아줄을
가꾸로 틀며 農夫들은 생소나무를 베어 어깨에 메고
農謡를 부르며 跣着하면 벧. 브리. 조. 팔. 기장의
五穀을 달아 벧가릿대를 세우며, 나무메를 들은
주민들은 내땅을 넓히기 위하여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하며 마당 쟁기를 한다

○ 禾 筭 祭

2월 초하루가 왔다. 草家집안에서 祭物을 만
들어 광주리에 또아리를 받쳐 이고 나온 아낙네들은
벧가릿대 앞에 자리를 깔고 北向으로 祭床을 차린다.

令座와 東西執事는 심물을 피서 洗手를 한다.

祭床이 다 차려지면 住民들은 令座뒤로 끌어앉아
一齊히 비손을 하며, 이때 令座는

「全知全能하신 神靈님께 비나이다.
입은 德도 많지마는 今年에도 우리 朝鮮
三千里 八道江山에 三災를 물리치고
豊年이 들게 하시고, 온 百姓들이 富貴登命
하며 子孫마다 安過太平하게 하여
주시기 두손 모아 비나이다」

라고 비손문을 하면 住民一同은 再拜한다.

그리고 執事는 祭物을 바가지에 담아

「東西南北 오고 가는 雜鬼雜神은
과들 먹고 물러나라!
고수레! 고수레! 고수레!」

하며 四方으로 飮食을 던지고 서는 큰소리로

「이리들 오시유!
술 들 잡수시유!」

하고 외치면 아낙네들은 草家집에서 술등이러

飮食을 이고 나온다.

그때 한 난쟁이가 어디서 들어온다.

이것을 본 마을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오늘의 난쟁이가 어디라고 오는거냐?

썰랑벼 생기려구! 썩 물러가라!」

하며 밀어낸다.

이때 뚝은편에서 키라리가 들어오자 마을사람
들은 이를 반가히 맞으며,

「키 큰 兩班도이 들어와야 벼가 키도 크고

大豊이 든다오, 어서와 술을 드시유」

하며 厚하게 待接한다.

이때 令座는

「우리 할바탕 놀아 보세!」

하고 외친다.

○ 農事놀이

令座의 외침과 함께 住民 모두는 한데 어울려

농갈이. 씨레질. 모심기. 호미레미 벼 打作 等의
農事 놀이나 씨름등을 하면서 흥겨우게 한마당놀이
를 벌인후, 農樂의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五舞童
서기로 한마당의 絶頂에 이른다.

○ 벼 가릿대 높이기

한마당놀이가 끝이날 무렵 마을사람들은 상사
디야를 부르며 벼가릿대를 높인다.

이때 令座가 벼가릿대에 매달았던 五穀을 풀어
씩든 狀況을 살펴보고,

「五穀이 모두 싹이 잘 트였으니, 올해는
모든 穀食이 豊年이 들겠네!

벼 萬石이요!
보리 5千石이요!
조 3千石이요!
팥 2千石이요!
기장 1千石이요!」

하면 住民 모두는 豊年을 맞이하는 기쁜
함성을 지른다.

그리고 뉘 벧가릿대줄은 작드로 쉰은 다음
五穀과 함께 섬에 담아 집으로 저들이면서
벧가릿대 늘이는 끝이 난다.